

강원도 '청년의 날' 기념행사성로 '소통왕 김진태' 등 프로그램 진행

강원특별자치도는 21일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흥천 국민체육센터에서 '2024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Everyday Youth day: 모든 날이 청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김진태 지사와 신영재 흥천군수, 도·군의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을 비롯해 청년창업가, 청년공동체, 군인 등 약 150여 명의 청년이 참석했다.

강원 청년으로 구성된 '꼭다한 밴드'의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연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단체에 수여하는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시상(수상자: 더픽트)과 유명인사 및 도 청년정책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청년의 날 축하 응원 영상 메시지 상영, 청년 축하 공연(한림대 치어리딩 동아리 유니콘), 청년 문화 공감을 위한 이모지 퀴즈게임, 청년 소통 공감을 위한 김진태 지사와 함께하는 '청년 고민 파헤치' '소통왕 김진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청년 창업가들이 직접 체험 프로그램과 플리마켓을 운영하여 청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됐다.

김철수 기자 cskim@skyedaily.com



경상북도는 20일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자리 편의점 경북1호점 구미지점' 개소식을 했다. 경상북도

경북도, 전국 첫 일·돌봄 양립 '일자리 편의점' 구미 지점 오픈

경상북도에서는 취업 희망 여성이 일산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 단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도는 저출생과 전쟁 중인 가운데 돌봄 양립을 지원하는 '일자리 편의점'을 전국 최초로 오픈했다. 도는 20일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자리 편의점 경북1호점 구미지점' 개소식을 했다.

이 자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도시의원, 구미상의 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일자리 편의점은 일과 돌봄을 병행하고 이를 통해 여성 경력을 이어주는 사업으로 취업 희망 여성을 위한 단기일자리 매칭과 자녀 돌봄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견인한다.

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은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며 관내 아이 돌봄 시설 및 기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용 대상은 영유아, 초등학교에 있는 가구의 경력 단절 및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부부생산, 소포장, 민원 안내, 매장 관리 등 다양한 분야가 준비되어 있다.

올해 2일부터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온·오프 라인으로 모집하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일하는 동안에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K보육 등 돌봄센터에서 아이를 돌봐준다.

일자리 매칭을 요청한 기업에는 △출산,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소규모 사업장 단기 인력에 맞추어 최대 3개월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의성군 '대구경북공항 배후신도시' 만든다

경북, 신공항 프리존 'Hexa Port'의 중심·문화관광 단지 조성 첨단기술 활용 주거·산업·관광·교육 혁신 중심지 탈바꿈 온힘

경상북도는 대구경북공항 배후 신도시 의성군을 도 전역 발전을 견인하는 글로벌 복합 신도시로 만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공동 합의를 따라 의성군 일원에 신공항 배후 신도시 조성 및 의성문화관광 단지를 조성한다.

특히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도는 의성군 신공항 프리존을 경북 Hexa Port(Hexa Port)의 중심으로 조성하고자 대구경북공항을 중심으로 도내 전 지역을 신공항 프리존, 치유산업축, 인공 지능(AI)융합형 신성장 삼각지대, 스마트 첨단산업 혁신축, 알타시아α에너지축, 모빌리티·교육·생명 축 등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도는 그중 의성군을 중심으로 한 신공항 프리존 권역에 신도시 개발,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광문화단지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가 계획 중인 공항신도시는 330만㎡(100만 평) 규모로 7300가구 1만5000명 규모의 모빌리티 특화 도시(22만 평)를 포함해 항공산업단지(59만 평), 스마트 항공물류단지(19만 평) 등을 포함한 복합 신도시 개발을 준비 중이다.

또한 항공 물류와 항공 산업의 앵커기업을 유치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산업기반 구축과 각종 국비지원과 규제 완화로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최근 급증하는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량으로 최근10년간 국내 중국발 Sea & Air 환적 물동량은 평균 7.8%씩 성장해 2023년 9만8000t으로 이미 인천항 등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도는 포항 영일만항과 중앙선 철도를 연결하고 대구경북공항 인근에 항공과 직접 연결하는 내륙 복합터미널인 드라이프포트를 조성한다.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량과 일본-러시아발 해상 물량을 영일만항에 유치한 후 대구경북공항을 통해 미주, 동남아로 환적 하도록 국제 Sea & Air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계획의 하나로 도는 공항신도시 내 산업(물류)단지를 물류, 제조, 유통, 연구개발(R&D)에 특화된 경제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경제특구 지정 시 각종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내외 글로벌 기업 유치로 공항 경제권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미래식품 R&D, 생산, 기업지원,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항 신도시와 연계한 생산·가공·유통서비스 수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래식품 산업 육성과 경쟁력 확보에 나서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신도시 내 항공 관련 도내 교육인프라와 관련 기업 매칭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고 항공기 유지보수·운영(MRO) 공동실습장, 자동공공물류창고, 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해외 유학생 유치, 취업 청년 주거 인프라 조성 등 특화된 국제 공동캠퍼스 조성으로 글로벌 지방시대를 선도한다.

도는 K콘텐츠 한류 테마파크, 산업역사관과 기업관 등을 포함한 1조 원 규모의 의성 문화 관광단지에 대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으로 2026년도 신규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목표로



경상북도는 대구경북공항 배후신도시 의성군을 도 전역 발전을 견인하는 글로벌 복합 신도시로 만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의성군 신공항 프리존을 경북 Hexa Port의 중심으로 조성한다. Hexa Port 개념도. 경상북도

하고 있다. 의성군 일원 공항 신도시 지역은 2023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최초의 미래 모빌리티 특화 도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며 국비 3억5000만 원을 투입해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 도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모빌리티 특화 도시는 국제적 수준의 모빌리티 인프라와 서비스, 자율주행차 및 미래항공모빌리티(AAM) 같은 첨단 기술도입을 통해 단순한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아닌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으로 도시의 다양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디지털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스마트 에너지(스마트 그리드, 건물에너지 관리, 재생에너지 등), 스마트 교통(대중교통, 주차, 교통관리 등), 스마트 환경(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관리 등) 등의 분야에서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특화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신공항의 도시구상과 광역교통망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산업·물류단지를 포함한 신도시 개발과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의성 지역에 413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796억 원의 부가가

치 유발, 2572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낸다.

또한, 신도시 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이전트, 소시어스, 스위스포트코리아 등 22개 민간기업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외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한 MRO 산업 육성을 주도해 공항신도시를 아시아 물류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의성 공항신도시뿐 아니라 의성군 전체를 공항 경제권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경북도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동해시 '다자녀 인증 모바일 앱' 구축

강원 첫 10월말... '다동e카드'로 간편하게 인증 민간 할인가맹점 수시 모집... 우대 분위기 조성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는 도내 최초로 추진 중인 '동해 다동e카드' 모바일 앱 개발 완료로 앞두고 다자녀 가구에 할인 혜택을 줄 민간 할인가맹점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비롯해 다자녀 가구에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며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으려면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항상 지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증빙서류의 실시간 변동사항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다자녀 가구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를 대체하는 '동해 다동e카드'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모바일 카드 한 장으로 간편하게 지원과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해 다동e카드' 모바일 앱 개발 용역 완료 예정인 10월 말에 맞춰 민간 할인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이는 모바일 앱 상용화 시점에 맞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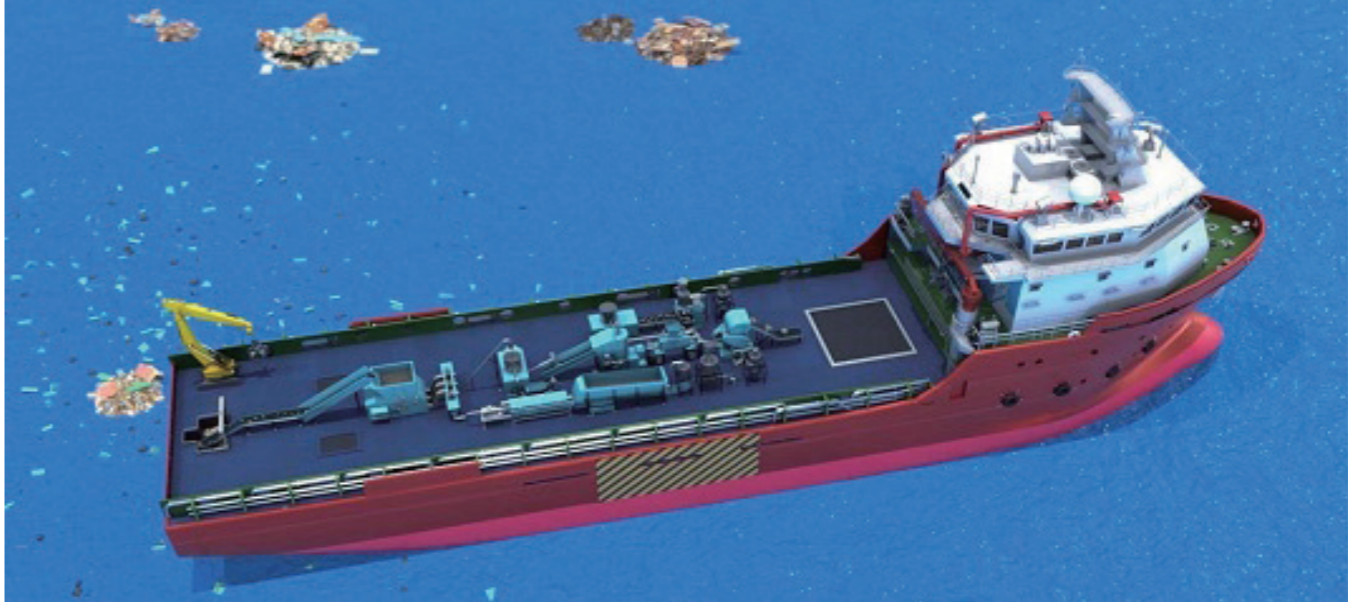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는 도내 최초로 추진 중인 '동해 다동e카드' 모바일 앱 개발 완료로 앞두고 다자녀 가구에 할인 혜택을 줄 민간 할인가맹점 모집을 시작한다. 동해시

용을 활성화하고 공공시설 위주의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민간 분야로 확대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다.

모집 대상은 관내 민간업체로 학원, 식당, 카페, 병원, 미용, 의류 등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업체를 수시 모집한다.

김철수 기자 cskim@skyedaily.com



해양쓰레기 수거용 LNG·수소 하이브리드 선박 개념도. 부산대수소선박기술센터

부산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구축

국내 최초 개소... 첨단 설비장비 40여 종 보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국내 최초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연구개발(R&D) 플랫폼'(수소선박기술센터) 개소식이 20일 오후 부산광역시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열렸다.

이날 개소식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시의회 의장, 최재원 부산대 총장 등 산학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된 환경 규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100% 감축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분야 국내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위해 친환경 연료 선박개발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부산대는 수소전기

동 신연료 선박 기술개발을 위해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유치를 시작해 2022년 1월 건축공사를 착공,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을 구축했다.

남구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지상 4층, 연면적 2911.44㎡ 규모로 조성된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은 총 사업비 369억 원(국비 260억 원·시비 88억 원·민자 21억 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탈탄소 시대에 대비해 수소연료 선박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설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곳은 1층 시험동, 2층 연구동, 4층 기계

실로 구성된다. 특히 1층 시험동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선박 핵심기술을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소선박용 기술개발 장비 9종과 핵심기자재 개발에 필요한 첨단 연구 개발 설비장비 40여 종을 보유하고 있다.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이 구축되면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가 추진하는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실증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조선기자재 업계의 수소선박 핵심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